

중등학교 교사의 종교와 영성이 교사의 교육이데올로기와 갈등대처에 미치는 영향*

신 건 호

강남대학교

〈요 약〉

이 연구는 중등학교 교사의 종교와 영성이 교사의 이데올로기와 대인간 갈등 대처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일원에 근무하는 중등학교 교사 204명이 연구대상으로 표집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다음의 3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사의 종교집단 간 영성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교사의 종교집단 간 교사의 교육이데올로기와 갈등대처양식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교사의 영성은 교사의 교육이데올로기와 갈등대처양식과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적 안녕감에서 기독교집단과 가톨릭집단이 무교집단과 불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고, 실존적 안녕감에서는 가톨릭 집단이 무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기독교집단은 교육적 근본주의에서 가장 높았고, 불교집단은 교육적 근본주의와 교육적 주지주의, 그리고 교육적 보수주의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갈등대처양식인 경쟁에서는 기독교집단이 가장 높았고, 가톨릭집단이 가장 낮았으며, 순응과 타협 그리고 협동에서는 무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넷째, 종교적 안녕감은 근본주의, 주지주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실존적 안녕감은 교육적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교육적 이데올로기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종교적 안녕감은 갈등대처양식 중 협동, 순응, 타협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실존적 안녕은 협동과 타협의 대처양식과 유의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 연구의 결과와 논의하였다.

핵심 주제어: 종교, 영성, 교육이데올로기, 갈등대처양식

* 이 논문은 강남대학교 2008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I. 서 론

교사의 가치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다양하다. 교사의 개인적 배경이나 특성 그리고 교사의 교육적 신념, 교사의 교육방법 등이 주요한 변인으로 지적된다. 교사의 개인적 배경에 관한 연구들은 교사의 성별이나 나이, 교육경력 그리고 종교와 같은 변인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영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영성은 높은 자존심과 적응에 긍정적이며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제공하고,¹⁾ 경험에 대한 재구성을 하며 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²⁾ 우리 사회의 종교는 다양하다. 종교의 다양성은 서로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교사들의 개인적 가치나 교육에 대한 이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김동기 등³⁾에 의하면 개인들의 종교유형에 따라 종교적 내재성과 정교정향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종교유형이 가치나 이데올로기의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에 대한 종교의 긍정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의 주제 중에 하나는 영성이 다.⁴⁾ 영적 안녕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영적 안녕을 가진 사람은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미래의 의미와 궁극적인 목적까지 찾을 수 있다.⁵⁾ 영성에 대한 연구는 종교영적 안녕의 구조를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으로 나눈다.⁶⁾ 그들에 따르면 수직적 차원은 신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영적 안녕으로 종교적 안녕이고, 수평적 차원에서 느끼는 영적 안녕은 실존적 안녕이라고 구분하여, 개인이 갖고 있는 각각의 안녕감이 기원과 영향이 다를 수 있다. 영적 차원을 다루는 연구는 과연 영성(spirituality) 또는 종교성(religiosity)이 개인의 적응 혹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주로 다룬다.⁷⁾ 몇몇의 연구는 융통성 없고 절대적인 종교성은 정서적·사회적 부적응을 낳지만,⁸⁾ 일반적으로 종교성은 개인의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⁹⁾

1) A. K. Dalal & N. Pande, "Psychological recovery of accident victims with temporary and permanent dis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3, 1988, pp.25-40.

2) J. R. Mickley, K. I. Pargament, C. R. Brant & K. M. Hipp, "God and the search for meaning among hospice caregivers", *Hospice Journal*, 13, 1998, pp.1-18.

3) 김동기·고병철. 「수도권 지역 개신교인, 불교인, 천주교인의 종교적 내재성과 비교 - 종교정향과 종교의식의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 『종교교육학연구』 제19권(한국종교교육학회, 2004).

4) C. R. Snyder, C. R. Shane & J. Lopez,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5) M. A. Burkhardt, "Spirituality: Analysis of The Concept", *Holistic Nursing Practice*, 1(3), 1989, pp.69-77.

6) R. F. Paloutzian & C. W. Ellison,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In L. A. Peplau, D. Permen(Eds). *Loneliness: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2) pp.224-236.

7) C. G. Ellison, D. A. Gay & T. A. Glass, "Does Religious Commitment Contribute to Individual Life Satisfaction?", *Social Forces*, 68, 1989, pp.100-123.

종교적 전통이 뿌리 깊은 서구문화에서는 선한 생활의 영위에 관해서 다음의 여섯 가지 견해가 있다고 오닐(O'neil)은 제시하고 있다.¹⁰⁾ 그는 선한 생활의 위계적 구조를 직관적 또는 계시의 표준과 일치, 사변적 이성과 형이상적 지혜에 근거, 기존사회의 신조나 행동의 표준을 채택, 실용적 지성, 인도적인 사회구조를 발전, 개인의 자유를 최고신장 등 6가지로 들고 있다.

그는 여섯 가지 도의철학의 입장에 기초하여 서구 세계의 이데올로기를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대별하고, 전자는 교육적 근본주의, 교육적 주지주의 및 교육적 보수주의가 포함되고, 후자는 교육적 자유주의, 교육적 해방주의 및 교육적 정부주의로 포함된다고 주장한다.¹¹⁾

최근 교육정책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이념적 갈등은 치열하다.¹²⁾ 크고 작은 교육적 문제에 대한 쟁점은 극단적 보수와 극단적 진보의 논리에 의해 점철되고 있다. 대학입시제도, 교원평가, 학교평가 등의 문제는 보수와 진보 중 어느 이데올로기를 갖느냐에 따라 그 시각이 결정된다. 우리 사회의 많은 교육적 이슈에는 교육적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그 맥에 놓여 있다. 이러한 교육관련 집단사이에 놓여있는 갈등을 교육적 의미에서 이해하는데 교육적 이데올로기를 철학적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이데올로기와 관련지어 논의한 이러한 분류는 의미를 줄 수 있다.

교육적 갈등의 기원이 구성원의 이념적 차이에서 유래하든, 실제적인 이해에서 시작하든지 간에 그 결과는 파괴적일 수도 있고, 생산적일 수도 있다. 갈등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갖는다.¹³⁾ 갈등은 개인 내, 개인 간, 집단 내, 집단 간 등의 모든 인간관계 수준에서 유발된다.

리터러(Litterer)는 갈등의 원인을 상충되는 목표, 제한된 자원의 분배, 갈등하는 인간의 지위 차, 개인의 갈등에 대한 지각 차이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¹⁴⁾ 이러한 지각 차에

8) B. Hunsberger, S. Alisat, S. M. Pancer & M. Pratt, "Religious Fundamentalism and Religious Doubts: Content, Consciousness and Complexity of Thin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Psychology of Religion*, 6, 1996, pp.39-49.

9) C. D. Batson, P. Schoenrade & W. L. Ventis, *Religion And Individual: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10) W. O'neil, *Educational Ideologies: Contemporary Expression of Educational Philosophy* (Glenview, Illinois : Scott, Foresman & Company, 1981)

11) 이남표, 『한국중등교사의 교육이데올로기에 관한 조사연구』 『논문집: 사대연구』 4권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1986)

12) 안병영, 『교육과 이데올로기』 『철학과현실』 76호 (철학과현실사, 2008)

13) M. Deutsch, "A Framework for Teaching Conflict Resolution in the Schools" In B. H. Sheppard, M. H. Bazerman, & R. J. Lewicki(Eds.), *Research on Negotiation in Organizations* Vol. 2. (Greenwich, CT: JAI Press, 1990).

14) J. R. Litterer, *Managing Conflict in Organizations*, Proceeding of the 8th Annual Mid-West Management Conference(Southern Illinois University, 1965)

대한 연구 결과는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은 갈등당사자가 지닌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¹⁵⁾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육적 갈등은 이해당사자 간의 가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가치는 교육구성원이 가진 교육적 이데올로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갈등이 개인과 조직에 순기능이 되느냐 아니면 역기능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당사자들이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와 관련된다. 한 연구는 갈등의 대처유형을 경쟁, 회피, 순응, 타협, 협동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¹⁶⁾ 그들에 의하면 경쟁은 자기방식대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고, 회피는 갈등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자체를 피하는 것이며, 순응은 갈등상대에게 양보하며, 타협은 서로가 이득과 손해를 줄이려 신속하게 합의에 이르는 것이며, 협동은 갈등당사자들이 함께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피셔(Fisher)와 유리(Ury)는 갈등대처 양식을 온건형, 강경형, 그리고 원칙형으로 유목화 하였다.¹⁷⁾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토마스(Thomas)와 킬만(Kilmann)의 갈등대처양식 중 경쟁은 강경형으로, 회피와 순응은 온건형으로, 타협과 협동은 원칙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의 학교교육현장은 많은 갈등주제가 상존한다. 고교평준화, 학생평가, 교사평가, 교원 노조 등에 대한 갈등은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구성원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교사가 교육적 문제에 대한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강경형인지 온건형인지 아니면 원칙형인지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가 없어 무엇이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교사들이 갈등에 대처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학교나 구성원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이 결정된다는 것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타인에 대한 조망수용수준이 낮을수록 강경한 해결방식을 택하고,¹⁸⁾ 개인이 사회정체보다 개인정체를 가질 때 온건한 해결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⁹⁾ 또한 인간관계에서 개인지향적인 집단이 지위지향적인 집단보다 원칙형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⁰⁾

앞서 제시한 것처럼 교사는 청소년기의 발달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 교사

15) B. H. Shaver & W. Strong, *Facing Value Decision: Rational Building for Teachers* (Belmont, California: Wadworth, 1976)

16) K. W. Thomas & R. H. Kilmann, *Thomas-Kilmann Conflict Mode Instrument* (New York: XICOM, Tuxedo, 1974)

17) R. Fisher & W. Ury, *Getting to Yes* (New York: Penguin, 1981)

18) M. A. Neal & M. H. Bazerman, "The Effect of Perspective-taking Ability under Alternative Forms of Arbitration on the Negotiation Proces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 Review*, 36, 1983, pp.378-388.

19) 김태준 · 이수원, 「사회적 갈등에 대한 지각에서 입장개입의 효과」 『한국사회심리학회지: 사회』 6권 2호 (한국심리학회, 1992).

20) 김진경 · 이수원, 「개인지향 인간관계와 지위지향 인간관계에서 갈등지각의 차이」 『한국사회심리학회지: 사회』. 7권 1호 (한국심리학회, 1993).

의 종교와 영성의 차이는 교사의 교육적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문제의 갈등에 대한 대처 양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교사의 영성과 교육이데올로기 그리고 갈등의 해결양식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학생뿐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들에게 영향을 준다. 물론 어떤 종교가 어떤 교육이데올로기와 깊이 관련될 것에 관해서 가설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사의 종교별 교육이데올로기를 다룬 선행연구가 없다는데 우선적으로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맥락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다음의 3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교사의 종교집단 간 영성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교사의 종교집단 간 교육이데올로기와 갈등대처양식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교사의 영성은 교사의 교육이데올로기와 갈등대처양식과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K대학에서 2009학년도 여름학기에 실시된 1급 정교사 연수와정에 참여한 24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조사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에서 무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자를 제외하여 실제 분석대상은 남자교사 90명, 여자교사 114명으로 전체 204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성별과 나이의 분포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성별과 나이 빈도(%)

특성	유목	빈도	비율(%)
성별	남	90	44.1
	여	114	55.9
나이	20대	33	16.2
	30-35세	91	44.6
	36-40세	37	18.1
	41-45세	10	4.9
	46-50세	22	10.8
	51세 이상	11	5.4

2. 조사도구의 측정

1) 종교의 측정

조사 대상자의 종교를 알아보기 위해 기독교, 가톨릭, 불교, 기타종교, 무교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빈도를 산출한 결과 본 연구대상자 중 기타 종교의 유목에 속하는 대상자는 없었다.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자의 종교는 다음 <표 2>과 같이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종교

특성	유목	빈도	비율(%)
종교	기독교	68	33.3
	가톨릭	40	19.6
	불교	30	14.7
	무교	66	32.4
	전체	204	100.0

2) 영성의 측정

영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팔라우진(Paloutzian)과 엘리슨(Ellison)에 의해 개발된 영적 안녕척도(spiritual well-being)를²¹⁾ 번안하여 사용한 강연정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²²⁾ 이 척도는 종교적 안녕감과 실존적 안녕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을 기초로 하여 내적 합치도를 계산한 결과 종교적 안녕감은 $\alpha=.934$, 실존적 안녕감은 $\alpha=.846$ 으로 나타났다.

3) 교사의 교육이데올로기 측정

본 연구대상인 중등교사의 교육 이데올로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은 오닐(O'neil)이 만든 이데올로기의 문항을 번역한 이남표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²³⁾ 이 문항은 6개의 이데올로기 범주에 각각 12문항이 포함되어 전체 문항 수는 72문항이었다. 6개의 이데올로기 범주는 교육적 근본주의, 교육적 주지주의, 교육적 보수주의, 교육적 자유주의, 교육적 해방주의, 교육적 부정부주의였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를 구한 결과 크론바흐 알파(Cronbach α)계수는 교육적 근본주의 .656, 교육적 주지주의 .609, 교육적 보수주의 .726, 교육적 자유주의 .747, 교육적 해방주의 .624, 교육적 부정부주의 .702로 나타났다.

21) R. F. Paloutzian & C. W. Ellison, op. cit., pp.244-236.

22) 강연정, 『영적 안녕과 관계 성숙을 위한 기독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L. J. Crabb과 H. Clinebell의 기독교 상담이론을 중심으로』(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23) 이남표, 앞의 책.

4) 갈등대처양식의 측정

라힘(Rahim)이 제작한 28개 문항의 조직갈등검사를²⁴⁾ 변안한 김진경과 이수원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에 기초하여 학교장면에서 교사들이 타인과의 갈등에서 사용하는 대처양식을 측정하였다.²⁵⁾ 이 척도는 갈등의 대처양식을 협동, 회피, 경쟁, 순응, 타협 등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를 구한 결과 크론바흐 알파(Cronbach α)계수는 협동 .642, 회피 .672, 경쟁 .681, 순응 .645, 타협 .636로 나타났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교사의 종교집단별 집단 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영성과 관련변인과 상관계수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Ⅲ. 결 과

본 연구는 먼저 교사의 종교집단에 따른 영성과 교사이데올로기, 갈등대처양식의 결과를 제시하고 이어서 영성과 관련 변인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1. 교사의 종교와 영성

중등학교 교사의 종교가 영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종교별 영성의 평균과 편차를 다음 <표 3>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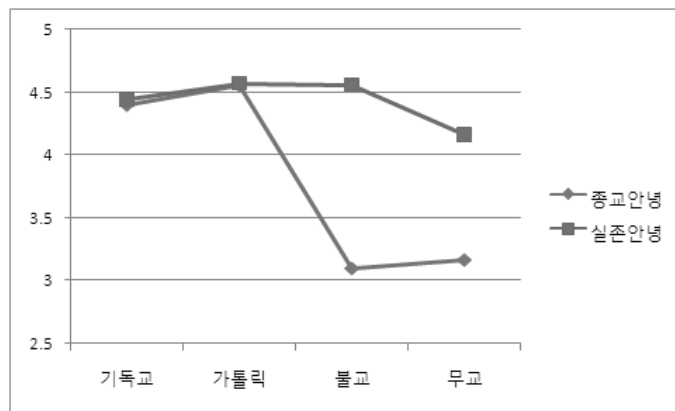
24) A. Rahim, *Rahim Organizational Conflict Inventory-II: Forms A, B, & C*. (Palo Alto, Cal.: Consulting Psychology Press, 1983).

25) 김진경 · 이수원, 앞의 책.

〈표 3〉 중등학교 교사의 종교에 따른 영성 평균(편차)

종교		종교적 안녕감	실존적 안녕감
기독교	평균	4.40	4.44
	사례수	68	68
	표준편차	.85	.68
가톨릭	평균	4.56	4.57
	사례수	40	40
	표준편차	.86	.85
불교	평균	3.10	4.56
	사례수	30	30
	표준편차	1.27	.79
무교	평균	3.17	4.16
	사례수	66	66
	표준편차	.86	.79
전체	평균	3.84	4.39
	사례수	204	204
	표준편차	1.12	.78

위의 표에서 기초하여 종교적 안녕에 대한 종교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F=35.16$, $df=3/200$, $p<.05$). 이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표 3〉에 근거하여 도식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교사의 종교에 따른 영성

〈그림 1〉에서 보듯이 종교적 안녕감에서는 무교집단과 불교집단이 낮았다. 집단 간 차이를 터키(Tukey)의 사후 개별검증결과 기독교와 가톨릭 집단이 불교와 무교집단에 비해

영성 중 종교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높았고, 기독교와 가톨릭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불교와 무교집단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실존적 안녕감에 대한 종교 집단 간 차이 검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27$, $df=3/200$, $p<.05$). <그림 1>에서 보듯이 실존적 안녕감에서는 무교집단이 가장 낮았다. 집단 간 차이를 터키(Tukey)의 사후 개별검증결과 가톨릭 집단이 무교집단에 비해 실존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높았고, 기타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 집단 내에서 종교적 안녕감과 실존적 안녕감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그림 1>에서 보듯이 기독교집단과 가톨릭집단 종교적 안녕감과 실존적 안녕감 간 유의한 차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불교집단과 무교집단에서 실존적 안녕감이 종교적 안녕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9.57$, $df=29$, $p<.01$; $t=7.25$, $df=63$, $p<.01$).

2. 교사의 종교와 교육이데올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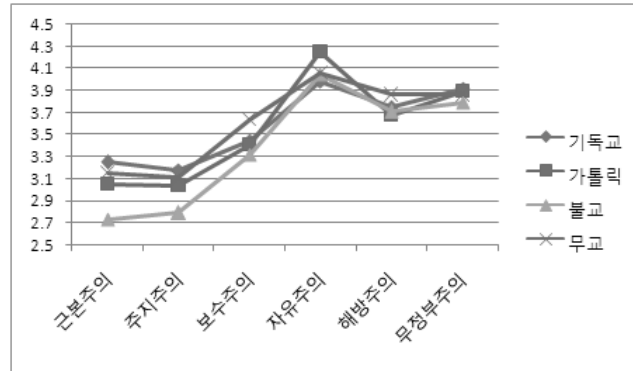
중등학교 교사의 종교가 교사의 이데올로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종교별 교육이데올로기의 평균과 편차를 다음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중등학교 교사의 종교에 교육이데올로기 평균(편차)

종교		근본 주의	주지 주의	보수 주의	자유 주의	해방 주의	무정부 주의
기독교	평균	3.25	3.18	3.45	3.98	3.75	3.92
	사례수	68	68	68	68	68	68
	표준편차	.52	.64	.55	.54	.55	.53
가톨릭	평균	3.05	3.04	3.41	4.25	3.68	3.89
	사례수	40	40	40	40	40	40
	표준편차	.58	.46	.63	.53	.53	.54
불교	평균	2.73	2.79	3.32	4.05	3.71	3.79
	사례수	30	30	30	30	30	30
	표준편차	.44	.76	.68	.47	.35	.41
무교	평균	3.15	3.11	3.64	4.06	3.86	3.86
	사례수	66	66	66	66	66	66
	표준편차	.66	.64	.51	.58	.50	.54
전체	평균	3.10	3.07	3.48	4.07	3.76	3.88
	사례수	204	204	204	204	204	204
	표준편차	.59	.635	.58	.55	.51	.52

위의 표에서 기초하여 교육적 근본주의에 대한 종교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F=6.02$, $df=3/200$, $p<.01$). 이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

기 위하여 <표 4>에 근거하여 도식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교사의 종교에 따른 교육이데올로기

〈그림 2〉에서 보듯이 교육이데올로기 중 근본주의에서는 기독교집단이 가장 높았고 불교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를 터키(Tukey)의 사후 개별검증결과 기독교와 무교집단이 불교집단에 비해 교육적 근본주의가 유의하게 높았고, 기독교와 무교집단 그리고 가톨릭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교육적 주지주의에 대한 종교집단 간의 차이검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F=2.74$, $df=3/200$, $p<.05$). 〈그림 2〉에서 보듯이 교육이데올로기 중 주지주의에서는 기독교집단이 가장 높고, 불교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를 터키(Tukey)의 사후 개별검증결과 기독교와 가톨릭 집단, 그리고 무교집단이 불교집단에 비해 교육적 주지주의가 유의하게 높았고 기타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교육적 보수주의에 대한 종교집단 간의 차이검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F=2.69$, $df=3/200$, $p<.05$). 〈그림 2〉에서 보듯이 교육이데올로기 중 보수주의에서는 무교집단이 가장 높았고, 불교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를 터키(Tukey)의 사후 개별검증결과 기독교집단과 가톨릭 집단, 그리고 무교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무교집단이 불교집단에 비해 교육적 보수주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교육적 자유주의와 교육적 해방주의, 그리고 교육적 무정부주의에서는 종교집단 간의 차이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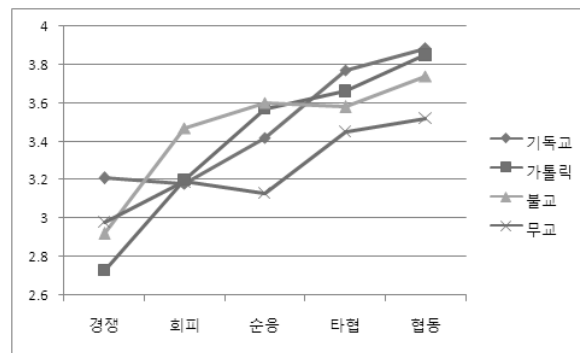
3. 교사의 종교와 갈등대처양식

중등학교 교사의 종교가 교사의 학교조직에서 나타나는 갈등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종교별 갈등 대처양식의 평균과 편차를 다음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중등학교 교사의 종교에 교육이데올로기 평균(편차)

종교		경쟁	회피	순응	타협	협동
기독교	평균	3.21	3.18	3.42	3.77	3.88
	사례수	68	68	68	68	68
	표준편차	.62	.67	.49	.46	.41
가톨릭	평균	2.73	3.20	3.57	3.66	3.85
	사례수	40	40	40	40	40
	표준편차	.81	.87	.69	.60	.68
불교	평균	2.92	3.47	3.60	3.58	3.74
	사례수	30	30	30	30	30
	표준편차	.75	.59	.57	.53	.57
무교	평균	2.98	3.19	3.13	3.45	3.52
	사례수	66	66	66	66	66
	표준편차	.60	.62	.49	.52	.56
전체	평균	3.00	3.23	3.38	3.62	3.73
	사례수	204	204	204	204	204
	표준편차	.69	.69	.58	.53	.56

위의 표에서 기초하여 갈등대처양식인 경쟁에 대한 종교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F=4.29$, $df=3/200$, $p<.01$). 이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표 5〉에 근거하여 도식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교사 종교별 갈등대처양식

〈그림 3〉에서 보면 경쟁에서는 기독교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톨릭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를 터키(Tukey)의 사후 개별검증결과 기독교와 가톨릭 간에는 경쟁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기타집단 간에는 경쟁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갈등대처양식인 회피에 대한 종교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F=1.36$, $df=3/200$, $p>.05$). 이 결과는 대처양식으로 회피를 사용하는 데서 종교집단 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순응에 대한 종교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F=7.55$, $df=3/200$, $p<.01$). <그림 3>에서 보듯이 갈등대처양식 중 순응은 불교와 가톨릭집단이 높았고, 무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를 터키(Tukey)의 사후 개별검증결과 기독교와 가톨릭, 불교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 세 집단이 무교집단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타협에서 종교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F=4.27$, $df=3/200$, $p<.01$). <그림 3>에서 보듯이 갈등대처양식 중 타협은 기독교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무교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를 터키(Tukey)의 사후 개별검증결과 기독교와 무교집단 간에 타협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기타 집단 간에는 타협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갈등대처양식인 협동에 대한 종교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F=5.62$, $df=3/200$, $p<.01$). <그림 3>에서 보듯이 갈등대처양식 중 협동은 기독교와 가톨릭집단이 높았고, 무교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를 터키(Tukey)의 사후 개별검증결과 기독교와 가톨릭, 불교집단 간에는 협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무교집단은 기독교와 가톨릭집단에 비해 협동이 유의하게 낮았다.

4. 교사의 영성과 교육이데올로기

중등학교 교사의 영성과 교사의 교육이데올로기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다음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중등학교 교사의 영성과 교육이데올로기의 상관(r)

영성	근본 주의	주지 주의	보수 주의	자유 주의	해방 주의	무정부 주의
종교적 안녕	.165*	.147*	.034	-.023	-.028	.037
실존적 안녕	-.036	.047	.152*	.194**	.083	.090

* $p<.05$ ** $p<.01$

위의 표에서 보면 종교적 안녕은 근본주의, 주지주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 결과는 종교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교육적 근본주의와 교육적 주지주의 이데올로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적 영성은 보수주의, 자유주의, 해방주의, 무정부주의의 교육이데올로기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실존적 안녕은 교육적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교육적 이데올로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p < .05$; $p < .01$). 이 결과는 실존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교육적 보수주의와 교육적 자유주의 교육이데올로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존적 안녕은 근본주의, 주지주의, 해방주의, 그리고 무정부주의의 교육이데올로기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5. 교사의 영성과 갈등대처양식

중등학교 교사의 영성과 교사의 갈등대처양식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중등학교 교사의 영성과 교육이데올로기의 상관(r)

영성	협동	회피	경쟁	순응	타협
종교적 안녕	.322**	-.098	.098	.216**	.212**
실존적 안녕	.251**	-.040	.027	.136	.157*

* $p < .05$ ** $p < .01$

위의 표에서 보면 종교적 안녕은 갈등대처양식 중 협동, 순응, 타협과 통계적으로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이 결과는 종교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협동, 순응, 타협의 갈등대처양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적 영성은 회피와 경쟁의 대처양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실존적 안녕은 협동과 타협의 대처양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p < .05$; $p < .01$). 이 결과는 실존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협동과 타협의 갈등대처양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존적 안녕은 회피, 경쟁, 순응의 갈등대처양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I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교사의 종교와 영성이 교사의 교육적 이데올로기와 갈등대처양식에 어떠한 영향을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다음의 3가지 연구문제를 상정하였다. 첫째, 교사의 종교집단 간 영성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교사의 종교집단 간 교육이데올로기와 갈등대처양식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교사의 영성은 교사의 교육이데올로기와 갈등대처양식과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종교집단 간 영성의 결과를 보면 종교적 안녕감에서 기독교집단과 가톨릭 집단이 무교집단과 불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고, 실존적 안녕감에서는 가톨릭 집단이 무교집단에 비해 실존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각 집단 내에서 종교적 안녕감과 실존적 안녕감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타 집단에서는 안녕감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불교집단과 무교집단에서 실존적 안녕감이 종교적 안녕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의 종교집단 간 교육 이데올로기의 결과를 보면 교육적 근본주의와 교육적 주지주의, 그리고 교육적 보수주의에서 모두 불교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교육적 자유주의와 교육적 해방주의, 그리고 교육적 무정부주의에서는 종교집단 간의 차이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교사의 종교와 갈등대처양상의 결과를 보면 경쟁에서는 가톨릭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순응과 타협 그리고 협동에서는 무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넷째, 교사의 영성과 교육이데올로기의 결과를 보면 종교적 안녕감은 근본주의, 주지주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실존적 안녕은 교육적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교육적 이데올로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교사의 영성과 갈등대처양식의 결과를 보면 종교적 안녕은 갈등대처양식 중 협동, 순응, 타협과 통계적으로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실존적 안녕은 협동과 타협의 대처양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 기초하여 종교와 영성, 그리고 교육이데올로기와 갈등대처에 관한 본 연구 결과의 의미를 논의를 하고자 한다. 먼저 첫째, 교사의 종교에 따른 종교적 안녕감에서 기독교집단과 가톨릭집단이 무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종교가 영성을 함양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⁶⁾ 다만 불교집단이 무교집단과 같이 기독교집단과 가톨릭집단에 비하여 종교적 안녕감이 낮게 나타나는 결과는 논의를 필요로 한다. 하나의 가능성은 영성의 하위척도인 종교적 안녕감이 기독교나 가톨릭의 영성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적절할 수 있으나 불교의 종교적 영성을 측정 도구로서는 타당성이 낮다는데서 기인할 수 있다. 더구나 영성의 척도개발은 주로 서구에서 이루어져 불교의 영성을 측정하는데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영성에 대해 불교가 가톨릭과 기독교와의 다른 개념화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은 추후 연구를 필요로 한다.

둘째, 실존적 안녕감에서는 가톨릭 집단과 기독교 집단, 그리고 불교집단이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무교집단만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26) 김동기, 『종교인들의 심리적 안녕감(행복)에 대한 종교적 내재성 및 종교정향의 상호작용 연구』 『종교연구』 39권 (한국종교학회, 2005)

연구결과와 일치한다.²⁷⁾ 또한 집단 내에서 볼 때 불교집단과 무교집단에서 실존적 안녕감이 종교적 안녕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간의 실존적 안녕감은 종교적 안녕감보다 종교의 유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의 종교와 교육 이데올로기에서 교육적 근본주의와 교육적 주지주의, 그리고 교육적 보수주의에서 모두 불교와 가톨릭이 기독교와 무교보다 낮게 나타났고, 교육적 자유주의에서는 천주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불교와 가톨릭 집단의 교사가 기독교와 무교집단의 교사보다 교육적인 입장에서 덜 보수적이라는 결과를 의미한다. 앞서의 오닐(O'neil)의 분류에서 교육적 근본주의는 직관적 또는 계시의 표준과 일치하는 가치체계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집단이 교육적 근본주의에서 높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가톨릭집단이 근본주의에서 낮다는 것은 가톨릭과 기독교집단의 영성에 대한 결과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교육적 진보성향의 이데올로기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가톨릭집단이 진보적인 성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사의 종교와 갈등대처양상에서는 기독교집단이 갈등해결에서 타 집단에 비하여 경쟁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불교집단은 갈등대처에서 회피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교집단은 순응과 타협, 그리고 협동의 대처양식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피셔(Fisher)와 유리(Ury)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집단은 갈등대처 양식에서 강경형을 많이 사용하고 불교집단은 상대적으로 온건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종교집단의 갈등대처 양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없지만, 하나의 가능성은 그들의 교육이데올로기에서 추측할 수 있다. 타 집단에 비하여 기독교집단이 교육적 근본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불교집단은 상대적으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점수가 높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교육이데올로기의 차이가 이러한 갈등양식에서의 차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추론의 경험적 증거를 필요로 한다.

다섯째, 종교적 안녕감은 근본주의, 주지주의와 관계가 있고 실존적 안녕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와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종교적 안녕감이 신이나 절대자에 대한 신념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실존적 안녕감은 자유주의와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적 안녕감은 보수적 성향과 실존적 안녕감은 진보적인 성향과 관계됨을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종교가 개인의 영성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갈등해결양식의 차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표집된 교사집단이 수도권 일부만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측정된 영성척도나 이데올로기의 척도가 우리 사회와 다른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갖는

27) 김동기, 앞의 책.

서구사회에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교사의 종교성과 이데올로기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점이 보완되어 추후의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교사 종교와 영성이 교사의 교육적 이데올로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좀 더 일반화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연정. 「영적 안녕과 관계 성숙을 위한 기독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L. J. Crabb과 H. Clinebell의 기독교 상담이론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김동기, 고병철. 「수도권 지역 개신교인, 불교인, 천주교인의 종교적 내재성과 비교-종교정향과 종교의사의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19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4)
- 김동기. 「종교인들의 심리적 안녕감(행복)에 대한 종교적 내재성 및 종교정향의 상호작용 연구」 『종교연구』 39권 (한국종교학회, 2005)
- 김진경, 이수원. 「개인지향 인간관계와 지위지향 인간관계에서 갈등지각의 차이」 『한국사회심리학회지: 사회』 7권 1호 (한국심리학회, 1993)
- 김태준, 이수원. 「사회적 갈등에 대한 지각에서 입장개입의 효과」 『한국사회심리학회지: 사회』 6권 2호(한국심리학회, 1992)
- 안병영. 「교육과 이데올로기」 『철학과현실』 76호 (철학과현실사, 2008)
- 이남표. 「한국중등교사의 교육이데올로기에 관한 조사연구」 『논문집: 사대연구』 4권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1986)
- Batson, C. D., Schoenrade, P. & Ventis, W. L., *Religion And Individual: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Burkhardt, M. A., Spirituality: Analysis of The Concept, *Holistic Nursing Practice*, 1(3), 1989.
- Dalal, A. K., & Pande, N. "Psychological Recovery of Accident Victims with Temporary and Permanent Dis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3, 1988.
- Deutsch, M. A framework for teaching conflict resolution in the schools. In B. H. Sheppard, M. H. Bazerman, & R. J. Lewicki(Eds.), *Research on Negotiation in Organizations*(Vol. 2). Greenwich, CT: JAI Press. 1990.
- Ellison, C. G., Gay, D. A. & Glass, T. A., "Does Religious Commitment Contribute to Individual Life Satisfaction?", *Social Forces*, 68, 1989.
- Erikson, E.H.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1968.
- Fisher, R., & Ury, W. *Getting to Yes*. New York: Penguin. 1981
- Hunsberger, B., Alisat, S., Pancer, S. M. & Pratt, M., "Religious Fundamentalism and Religious Doubts: Content, Consciousness and Complexity of Thin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Psychology of Religion*, 6, 1996.
- Litterer, J. R. *Managing conflict in organizations*. Proceeding of the 8th Annual Mid-West Management Conference(Southern Illinois University). 1965.
- Mickley, J. R., Pargament, K. I., Brant, C. R., & Hipp, K. M. "God and the Search for Meaning among Hospice Caregivers". *Hospice Journal*, 13. 1998.
- Neal, M. A. & Bazerman, M. H. "The Effect of Perspective-taking Ability under Alternative Forms of Arbitration on the Negotiation Process. Industrial and Labor".

- Relation Review*, 36, 1983.
- O'neil, W. Educational Ideologies: *Contemporary Expression of Educational Philosophy*. Glenview, Illinois: Scott, Foresman & Company. 1981.
- Paloutzian, R. F. & Ellison, C. W.,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In L. A. Peplau, D. Perman(Eds). *Loneliness: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John Wilet & Sons. 1982.
- Rahim, A. Rahim *Organizational Conflict Inventory-II: Forms A, B, & C*. Palo Alto, Cal.: Consulting Psychology Press. 1983.
- Savin-Williams, R. C., & Demo, D. H. Conceiving or Misconceiving the Self: Issues in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 1983.
- Shaver, B. H. & Strong, W. *Facing Value Decision: Rational Building for Teachers*. Belmont, California: Wadworth. 1976.
- Snyder C.R., Shane, C.R., & Lopez, J.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Soeken, K. L. & Carson, V. J. "Responding to The Spiritual Needs of The Chronically Ill".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22(3), 1987.
- Thomas, K. W., & Kilmann, R. H. *Thomas-Kilmann Conflict Mode Instrument*. New York: XICOM, Tuxedo. 1974.

원고접수: 2009년 10월 19일 1차심사: 11월 14일 게재승인일: 12월 1일

연구자 소개: 신건호

- ① 전공: 인간발달 및 교육심리 / 소속: 강남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학과
 - ② 관심영역: 인간발달, 종교발달, 사회문화심리.
 - ③ 주요논저: 『사회정체이론에서 본 집단심리』(2001), 『비고츠키: 마음의 사회적 형성』(1995), 「중학교 학생의 개인심리적 특성과 학교만족도가 교사와 학원 강사의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2008), 「중·고등학생의 영적 안녕감이 교사와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2008), 「유아교사와 예비 유아교사의 유아교사 이미지에 관한 연구」(2007)
 - ④ E-mail: khshin@kangnam.ac.kr
-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Religions and Spirituality on Educational Ideology and Conflict Handling -Focusing on Korean Secondary Teachers-

Shin, Keonho

Kangnam University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how secondary teachers' religions and spirituality affect on their educational ideologies and conflict handling styles. For its case study, this paper looked at 204 secondary school teachers working around Gyeonggi-do Province. The 204 participants consist of 90 male and 114 female teachers in middle or high schools.

This study started from these three questions: Firstly, does teachers' religions affect their spirituality at all? Secondly, do teachers' religions have an effect on their educational ideologies and the styles of dealing with conflict? Thirdly, is teachers' spirituality actually correlated to their educational ideologies and conflict handling styles?

For the answers to those questions this research has found the followings: Firstly, the Protestants and the Catholics feel more religious well-being than Buddhists and No Religion Group, while the Catholics feel more existential well-being than No Religion Group. Secondly, the Protestants have the greatest tendency of educational fundamentalism, while the Buddhists have the least tendency of educational fundamentalism, intellectualism, and conservatism. Thirdly, when it comes to conflict handling styles, the Protestants tend to be the most competitive, and the Catholics the least. Besides, No Religion Group has turned out to be the least adaptable, negotiable and cooperative. Fourthly, spiritual well-being is noticeably associated with fundamentalism and intellectualism, and existential well-being with educational conservatism and liberal ideologies. Fifthly, religious well-being is emotionally correlated with cooperation, adaptation and negotiation. In contrast, existential well-being is substantially relevant to cooperation and negotiation in terms of conflict handling.

Key words: Religions, Spirituality, Educational Ideology, Conflict Handling Style.